

# 넥센타이어, UFP로 세계시장 접수!

## 고부가가치 전략제품으로 사업역량 집중 ... 6월 매출 최대실적 기록

넥센타이어가 7월25일 고부가가치 전략제품에 대한 사업역량 집중 등 세계 20위권의 타이어 생산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넥센타이어는 공정공시를 통해 고급 타이어(UHP Radial Tire) 전용 생산설비 증설에 총 408억원을 투자하고 1일 평균 4000개를 생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유럽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겨울용 전략제품인 <STUD WINTER>를 개발하고 국내 택시전용 신제품도 본격 출시키로 했다. 특히, 미주시장을 겨냥한 LTR 신제품을 2004년 1월 선보인다.

아울러 물류센터 확충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판매 네트워크 강화로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영업망을 보강해 글로벌 마케팅도 강화한다.

비경쟁 사업부문을 폐지하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세계 20위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이다.

이에 앞서 넥센타이어는 2003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동기 1360억원보다 5.8% 증가한 143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상이익이 1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206억원보다 22.3% 감소했고, 영업이익 역시 16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208억원보다 14.1% 줄었다.

전체 매출액 중 수출은 8.3% 증가한 899억원을 기록했으며, 내수도 540억원으로 1.9% 늘었다.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타이어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마진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실 및 영업외 비용이 증가한 것도 경상이익 감소의 요인이 됐다.

그러나 넥센타이어는 2003년 6월 매출이 263억원으로 월 단위 최대 실적을 갱신했고, 특히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내수판매 비율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며 2003년 하반기 시황에 대해 낙관하는 모습이다.

또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로 매출 성장세 및 수익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상반기 영업이익 감소요인이던 원재료 가격도 최근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29>